

해남군,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돕는다

18~45세 임대 또는 매매 계약시 최대 0.5ha 3년간 120만원 지원 8월29일까지 군기술센터 접수 효율적 토지 활용 영농 정착 기대

전라남도 해남군이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농지확보를 위해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13일 해남군에 따르면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은 18세부터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이 임대 또는 매매 계약을 통해 농지를 확보할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주에게 ㎡당 24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대면적 5000㎡(0.5ha)까지로 최대 3년간 연간 120만원 한도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등록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한 자,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를 통해 청년농업인과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간의 농지 거래(매매 또는 임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29일까지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농업인 육성팀(061-531-3832)에서 문의 가능하다.

하다.

해남군 관계자는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은 전업·은퇴 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것은 물론 유휴농

지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세대 간 농지이용 협력을 통한 농촌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



‘빨간 모자와 늑대’ 특별 공연 목포어울림도서관

전라남도 목포어울림도서관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는 31일 가족 뮤지컬 특별 공연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가정의 달을 맞아 광주 극단 ‘청춘’에서 준비한 ‘빨간모자와 늑대’ 주제의 가족 뮤지컬이다.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참여형 공연으로 명작동화 ‘빨간모자와 늑대’의 소녀와 숲속 요정, 동물 캐릭터 배우들의 흥겨운 춤과 노래를 즐길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목포시통합도서관누리집(www.mokpolib.or.kr)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5세 이상 어린이(보호자 동반)부터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연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통합도서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목포어울림도서관(061-270-1272)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가족 뮤지컬 특별 공연을 통해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문화를 즐기는 시간을 보내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족문화를 지향하는 다양하고 유익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검정고시 합격자 8명 배출 무안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라남도 무안군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통해 지원을 받은 관내 청소년 8명이 지난 4월 실시된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13일 밝혔다.

무안군 꿈드림센터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학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재 지원과 인터넷 강의 제공 등 맞춤형 학습 환경을 통해 학습 역량 향상에 힘쓰고 있다.

오선희 무안군 주민생활과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학업은 물론 진로 탐색과 사회 진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검정고시 대비반 외에도 상담, 직업 체험, 자립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관내 9세부터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무안=김행언 기자



영암군 영암읍지사협 직원들이 지난 12일 취약계층 가구를 찾아 무너질 위기에 처한 대문 기둥을 보수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영암읍지사협, 취약계층 대문기둥 보수 봉사활동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마을이장 등의 요청을 받고 지난 12일 관내 한 취약계층 가구를 찾아 무너질 위기에 처한 위험한 대문 기둥을 철거했다.

13일 영암군 지사협에 따르면 이날 봉사활동과 함께 기둥대원들은 오래된 마루를 보수하고 영암읍지사협 위원들과 함께 집 안팎을 정리했다.

전의홍 영암읍지사협 민간위원장은

“복지사각지대를 연결해 준 마을이장님에게 감사하다”며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사협 위원들과 함께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강진 녹향월촌마을서 쌀 요리 체험

학생 진로탐색 도움 등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는 13일 전라남도 교육청과 함께 강진군 녹향월촌마을에서 전남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약 400만원 상당의 쌀요리 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업·농촌에서 꿈을 만들자!’라는 주제로 지역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농촌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돕기 위한 취지로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고 NH농협은행이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곡성 마량초등학교 학생 16명과 교직원 10명이 참여했으며 차상훈 전남농협노조위원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주요 일정은 꼬마김밥 만들기 체험과 썩인절미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됐으며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13일 강진군 녹향월촌마을에서 400만원 상당의 쌀요리 체험 교실을 운영했다. 강진군 제공

참가 학생들은 요리 활동을 체험했고 촬영을 통해 추억도 남길 수 있었다.

차상훈 전남농협노조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의 음식관광 자원을 활용한

체험 상품 개발의 일환”이라며 “농촌 체험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중·고등학생 대상 ‘평화비전스쿨’ 21일부터 15개 학교 순회 운영

전라남도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5 평화비전스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 인증 ‘진로체험처’로 지정된 평화비전스쿨은 다양한 직업군의 전문가를 초청해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 사상을 널리 알리고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진로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행되는 특별 강연 프로그램이다.

올해 강연에는 ‘재심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 독도 전문가 호사카 유지 교수,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을 지낸 강원국 작가, 황민구 법원상 분석가 등 각계 명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강연은 오는 21일 목포청호중학교를 시작으로 총 15개 학교를 순회하며 이뤄진다.

김두복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은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강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학교를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로컬푸드 활성화 기획전 강진농협, 전년비 매출 38% 증가

전라남도 강진군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14일간 실시한 ‘로컬푸드 활성화 기획전’에서 전년 대비 38% 매출 증가라는 성과를 기록했다.

13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은 강진농협 파머스마켓 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열렸으며 행사 기간 매장을 방문한 고객은 전 품목을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약 1억11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약 1억54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약 4300만원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14일간의 행사 기간 하루 평균 약 11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이번 성과는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6주년을 맞아 처음 실시한 할인 행사다. 군비와 로컬푸드 출하회 자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추진한 기획전의 성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 구조 정착과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강진군은 향후에도 반값 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은 농산물 소비 촉진과 관광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자 강진의 대표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